

카드론 대출에도 증빙자료 요구...서민금융 혼란 우려

수백만원 급전에 증빙 자료 요구 한다면 서민 사채시장 내쫓는 꼴
금융위 “연소득 내 신용대출’ 한도 산정 시 서민상품 일부는 예외”

“서민의 마지막 숨통인 카드론으로 수백만원 받는데, 사용자 증빙 자료까지 제출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새 정부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내놓은 카드론 한도 신용대출 산정 방안이 오히려 서민의 금융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존 카드론에 포함돼 별도의 증빙 없이 급전이 필요한 서민 등이 이용하던 카드론을 신용대출로 포함하고, 연 35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해서는

각종 증빙 절차를 조건으로 한도 산정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3일 금융당국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 밝힌 신용대출 한도 연 소득 이내 제한 및 서민금융상품이 인정되는 경우 대출 한도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긴 실무지침서를 금융권에 배포했다. 앞서 금융위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후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 밝힌 규제를 적용하는 시점 및 대출한도 계산 등에 대한 금융권 실무자들의 질문이 빗발치면서 금융위는 질의응답 형식의 안내 지침서를 추가 제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신용대출 한도는 모든 금융회사의 신용대출 합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최대 연 소득만큼 신용대출이 가능한데, 여러 은행 및 카드사 등에서 신용대출을 하는 경우 모든 신용대출 금액의 총합이 본인의 연 소득만큼 가능하다는 뜻이다. 특히 카드론의 경우 서민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지만, 실효성 및 효율성 면에서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새 정부는 기존 대출 분류에서 ‘기타 대출’로 분류했던 카드론을 신용대출 한도에 포함하기로 했

다.금융당국은 이 같은 카드론 제약 조치에 대해 서민이 필요한 때 급전조차 사용할 수 없게 됐다는 불만이 나오자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서민금융상품, 상속 등으로 대출 채무 인수를 하거나 결혼·장례·수술 등 목적의 긴급 생활안정자금 등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한도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에는 서민들이 별도의 복잡한 증빙 등의 절차가 없더라도 급전이 필요할 경우 카드론을 사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복잡한 증빙 절차와 조건이 성립해야만 카드론 대출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한 카드론 사용자는 “이미 일반 대출이 안되는 저 신용자들이 카드론을 사용하는데, 한도도 수백만원에 불과하다”면서 “긴급한 상황의 증빙자료까지

제출해야 한다면 카드론을 받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느냐. 결국 사채를 쓰라는 말이나 다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이 밖에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토지 거래허가제가 적용된 주택 매수자는 지자체에 거래허가를 받은 뒤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를 감안해 규제 발표일 전까지 지자체에 거래허가를 신청 접수한 경우만 이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될 경우에도 기존 보유 주택을 팔지 않으면 잔금 대출 등이 불가능하며, 기존 주택 처분은 신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 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규제 전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었다면 이전 규정을 적용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신세계 복합쇼핑몰 도시 활력·고용 창출 마중물 기대”

광주상의·광주경충 지역 경제계
광천터미널 복합개발 협정서 환영

광주지역 경제계가 광주시와 광주신세계의 광천터미널 복합 개발과 협상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나섰다. 광주상공회의소(광주상의)는 3일 한상원 회장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광주시와 광주신세계의 협상이 광주의 미래에 따뜻한 변화를 불러오는 희망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광주신세계가 2026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인근에 조성하기로 했던 광주신세계 프리미엄 백화점 개발이 지

연되면서 지역 경제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광주상의는 “광주의 관문이자 지역민의 일상과 함께한 광천동 유스퀘어 일원이 도심 복합 거점으로 새롭게 태어날 중대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청년 유출과 소비 침체, 투자 위축 등 위기를 맞은 광주에 대규모 민간개발사업이 본래도에 오를 것은 수천 명의 고용 창출과 소비·관광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갈 소중한 기회”라고 덧붙였다. 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경총)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협상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건설 단계와 운영 단계에서 수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광주·전남 상권 형성을 통해 광주시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경제발전과 광주·전남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신세계 확장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광주경총은 이어 “해당 사업은 지역 경제를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광주시 등은 지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소상공인 생계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상생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광주시와 광주신세계는 지난 2일 ‘광천터미널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1차 협상조정협의회’를 열어 광주신세계가 제출한 사업 제안서의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의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농어촌공사 K-농기자재 230만 달러 수출 협약

농식품부와 태국에 시장개척단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함께 태국에 ‘케이(K)-농기자재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수출상담회를 열어 230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 양 기관은 농기계, 비료 등 국내 농기자재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농산업수출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농기자재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수출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시장개척단 파견, 맞춤형 컨설팅, 해외 박람회 참가, 수출상담회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시장개척단은 동남아 농기자재 시장 진출의 교두보인 태국에 파견됐다. 태국은 농업 부문 국내 총생산(GDP) 비중이 8%에 달하는 농업국가로, 관련 정책에 발맞춰 스마트농업 기술 등 농기자재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식품부는 시장개척단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태국 파견에 대비해

태국 농업정책 및 유통구조 등을 분석해 국내 기업에게 교육도 하기로 했다.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지난달 24-25일 태국 현지에서 진행된 수출상담회에는 국내 농기자재 수출기업 15개 사가 참여하고, 태국 및 인접 국가 농기자재 구매기업 52곳을 초청했다. 그 결과 수출상담회에서 총 219건, 2160만 달러 규모의 상담이 이뤄졌고, 총 12건, 23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 체결이라는 성과를 냈다. 김우상 한국농어촌공사 기반사업이사는 “이번 시장개척단은 한국 농기자재 산업의 동남아 시장 진출에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국내기업의 수요와 해외 현지 시장을 연결하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우리 농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7월 서울 용산에서 농기자재 해외 구매기업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9월 중동 시장 진출을 위한 두바이 시장개척단 파견도 계획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켄텍, 미국 MIT와 인공 광합성 기술 개발 착수

‘액체연료 3% 이상 달성 목표’ 연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는 “미국 MIT ‘Yang Shao-Horn’ 교수 연구팀과 ‘태양광을 이용한 이산화탄소 액체연료 전환 효율 3% 이상 달성’을 목표로 국제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 이번 공동연구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지원하는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사업’으로, 강영수 켄텍 에너지공학부 교수 연구팀과 MIT의 Yang Shao-Horn 교수 연구팀이 주도하고 있다. 연구 기간은 오는 2028년 3월 31일까지이며, 각 연구팀들은 본격적인 공동연구 수행을 위해 정기적으로 연구 교류, 회의, 상호 연구실 방문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연구의 최종 목표는 태양 에너지만을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메탄올과 같은 고부가가치 액체 연료로 전환하는 ‘인공 광합성’ 기술의 효율을 3% 이상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해당 기술은 목표

를 달성할 시 최근 빈번해지고 있는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강영수 켄텍 교수는 “MIT의 Yang Shao-Horn 교수 연구팀과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인공 광합성 분야의 난제를 해결하고, 탄소중립 사회를 앞당길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양교의 연구 역량을 합쳐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연구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코스피	3116.27 (+41.21)
코스닥	793.33 (+11.16)
금리 (국고채 399년)	2.449 (-0.034)
환율 (US D) 〈오후 4시 35분 기준〉	1359.65 (+0.95)

롯데백화점 광주점 13일까지
예비 부부 ‘롯데웨딩페어’
할인·마일리지 다양한 혜택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13일까지 예비 부부들을 위한 ‘롯데웨딩페어’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올 1분기 혼인 건 수가 전년 대비 8.4% 증가하는 등 최근 예비 부부들의 혼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홈스타일링’을 테마로, 예비 부부 및 신혼 입주 고객들을 대상으로 할인, 마일리지 추가 적립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 <사진> 우선 웨딩 페어 참여 브랜드의 ‘웨딩마일리지 추가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웨딩마일리지는 롯데웨딩멤버스 가입 후 9개월 간 롯데백화점에서 구매한 금액을 적립해 최대 7% 상당을 롯데상품권으로 증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웨딩 페어 기간에는 구매 금액의 최대 2배까지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 가구 부문은 ‘에이스’, ‘시몬스’ 등이, 침구 부문은 ‘알레르방’, ‘소프라음’, ‘코지네스트’, ‘세사’가, 키친웨어 부문도 ‘휘슬러’, ‘르쿠르제’, ‘빌레



로이앤보호’, ‘덴비’, ‘즈윙링’ 등 유명 브랜드들이 참여한다. LG전자와 삼성전자는 웨딩 더블마일리지 행사는 참여하지 않는다. 대신 10% 추가 마일리지 적립 혜택과 카드사별 8.5%-9.5% 사은혜택, 브랜드 자체 특가 상품과 할인 쿠폰 혜택을 준비했다. 또 행사 기간 내 구매 브랜드 수 또는 구매 일수

에 따라 마일리지를 차등 지급하며, 최대 40만 마일리지를 추가로 지급하는 ‘웨딩 쉼린지’ 이벤트도 최초로 선보인다. 롯데웨딩멤버스 회원을 대상으로 오는 7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과일 선물세트 15% 할인 쿠폰과 특선 한우 세트 40% 할인 쿠폰도 제공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 데이터센터 어찌나...“2028년까지 수도권 데이터센터 40개 추가”

세빌스코리아 시장 리포트 보고서

오는 2028년까지 수도권에 데이터센터가 40개 추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광주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인공지능 중심 도시’ 조성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광주시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시설은 국가AI데이터센터인데, 단기간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조성되면 AI기업의 지방 진출이 줄어들고 데이터 센터 관련 우수 인력의 탈 지방화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 세빌스코리아가 공개한 ‘2025년 한국 데이터센터 시장 리포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데이터센터 시장은 디지털 산업이 급속도로 확장하면서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 상업용 데이터센터의 90%가 모여있는 수도권에 오는 2028년까지 데이터센터 40개가 추가 구축되고, 수도권에서 사용 가능한 전력 용량도 4.1GW(기가와트) 수준으로 현재(1.9GW)보다 152.6%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수도권이 안정적인 네트워크 인프라,

정보통신 전문 인력 공급, 기업 밀집도 등이 높지만, 전력 공급, 주민 등의 반대 및 인허가 규제 등으로 전력 공급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수도권 데이터 센터의 투자자 중 재무적 투자자 비중이 2024년 23%에서 2028년 63%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수도권 내 데이터 센터 투자와 관련 기업 유치 등이 집중될 경우 광주시를 비롯한 지방 AI·데이터 센터 등에서 우수 인재 및 기업 유치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우법 통과 환영...실질적 지원방안 마련되길”

한우협회 “8만 한우농가 역사적인 날”
전국한우협회는 3일 한우 농가 지원을 골자로 한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했다. 한우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우법 통과를 한우산업의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됐다”며 “8만 한우 농가에 역사적인 날”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법 제정을 통해 ‘한우 파동’으로 인한 무

더기 폐업과 농가의 빚더미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제값 받는 한우, 지속 가능한 한우 산업의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우법은 한우 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 가능한 한우 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라며 “정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한우법의 내용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한우 유전자 보호와 국가적 관리 체계 구축, 한우 수급 안정과 증장기 정책 수

립, 자급률 목표 설정과 정책적 지원, 탄소 저감 촉진 인센티브, 한우 소비 목표량 설정과 유통구조 개선, 기업 자본과 기업의 생산 참여 제한 등 실질적이고 실행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아, 법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완성에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우법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소고기 시장 개방 속에서 한우 산업 육성과 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 2014년 한우 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됐다. 제21대 국회에서도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전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이후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제정을 추진했다. /연합뉴스